

# 韓, 非유럽 최초 유레카 정회원국 글로벌 기술협력 선두주자 '우뚛'

2009년 가입... 200개 과제 지원 유레카 내 정책 결정 의결권 확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 주도"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유레카 정관을 개정해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로 한국과 캐나다가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유레카는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 현재 총 46개

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다. 2개국 이상의 산·학·연이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2018년부터는 파트너국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해왔다.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레카 내 정책 결정 시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급망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총회에 참석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협력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다"며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이 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2일~23일까지 리스본 에스토릴 컨벤션센터에서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한다. 그간 총 5151명이 참가해 총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됐으며, 올해는 한국과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청와대 개방 44일만에 관람객 100만명 달성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 44일째인

22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개최한 '100만 번째 청와대 관람객' 기념행사에서 1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된 김영순 씨(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일행이 축하 홍보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尹 대통령, 韓 정상 최초 'NATO' 회의 참석

北 관련 입장 설명... 참여국 지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해 나토 및 파트너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연대를 비롯해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나토와 함께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의 계기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협안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외교무대에서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외교무대 등판도 점쳐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200만원 지급

내달 1일까지 신청... 8월말 지급 "개별연락 등 정부 사칭 사기 주의"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고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오는 8월 말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계약을 맺은 자로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그동안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특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신분증 등을 챙겨 관할 고용센

터에 방문하면 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흠뻑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까지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총 63만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사칭하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6차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수소충전소 준공

하이넷 협력... 충전용량 시간당 25kg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 민관 합동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내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 대상으로 검토한 뒤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선정했고,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충전소를 구축했다.

민간 기업은 하이넷과 손 잡았다. 환경부는 인허가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원 등을 지원했다.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이달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8년 기준 14기에서 현재 170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수소차는 2만3000여 대로 추산된다.

하이넷은 오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 댓글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후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해 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환경부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소차 구매시 150대 한정 50만원 할인 행사를 한다. 다만, 수소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정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 방사청장에 엄동환, 기상청장에 유희동

尹 대통령, 처·청장 등 추가 인선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지원센터장을, 기상청장에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장에 임명된 엄동환 센터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 한국기계연구소 위촉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기상청장에 임명된 유희동 기상청 차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을 전공하고 부산지방기상청장, 기상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희동 기상청장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56)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이, 국무2차장에 이정원(56)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을 발탁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는 신영숙(5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박정익 기자

## 환경부 취약계층 대상 폭염대응 맞춤형 지원

올 여름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에게 청문형 냉방기와 부채, 양산 등 물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폭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1710여 곳 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에는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청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 상담을 하고, 양산과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세종=원승일 기자